

## 1. 공연 준비 전

### [공연 계획]

학교 극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부 극장을 대관해야하는 상황에서 역대 워크샵 공연처럼 각 캠퍼스에서 각 작품을 올리기에는 여의치 않아, 하나의 작품을 양 캠퍼스가 동시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지만 장 별로 인원이 나뉘어 연습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작품을 찾다가, 옴니버스 형식인 ‘올모스트 메인’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연출이 ‘이 작품을 해야겠다’보단 연습 사정상 ‘해야만 한다’에 가까웠지만, 과거 극회에서 해당 작품을 올린 이력이 있고 그 작품성도 우수하기에 워크샵 작품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초 연출 지원을 본인만 했고 1인 연출로 공연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명륜/율전 두 곳에서의 연습을 모두 관할하기 어려워 62기 허은세와 공동 연출진을 구성해 각 캠퍼스를 맡기로 했습니다. 조연출과 캐스트는 각 캠퍼스에서 충원하는 대신, 스태프는 양 캠퍼스 공동으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연출] (명륜) 정준원(61) (율전) 허은세(62)

[조연출] (명륜) 이유림(61) (율전) 이채연(62)

[무대감독] 문홍주(59)

[기획팀장] 김영서(62)

[스태프 팀장] 천유진(61, 오퍼), 이현진(62, 무대), 구하연(62, 의소분)

15주로 짜여진 2022학년도 학사일정으로 인해 워크샵 공연 날짜와 그 연습 기간도 5주 남짓으로 다소 촉박하게 짜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연진 모집이나 연습 과정도 대공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연습 1주 전 모집 시작). 또한 한 작품을 명륜/율전 두 공간에서 각각 진행하면서도 너무 분리된 느낌을 지우기 위해 중간 지점(이수)에 모여 다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철야 제외 2-3번 잡았습니다.

1주차: 아이스브레이킹, 기초 트레이닝, 배역 결정

2주차: 대본 분석과 간단한 리딩

3-4주차: 각 팀별 장면 연습, 철야 연습(4주차 주말)

5주차: 런쓰루, 무대 리허설, 공연

## 2. 공연 준비

## [1주차]

### [기초 트레이닝]

5주 중 배역이 결정 되기 전 시간은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아, 장면 연습을 시작하기 꼭 알아야 하거나 무대에 익숙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트레이닝만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공연때 진행하는 약 3-4주간의 트레이닝보다 확연히 짧은 기간이지만, 아예 생각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 공간이나 사람들에 익숙해지지 않은 캐스트들에게 이 일주일의 정말 중요하고 가장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22회 정기대공연 캐스트 시절 배운 트레이닝 방법을 포함해 여러 선배들의 조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1주차 기초 트레이닝을 기획했습니다.

#### (워밍업)

- 컵 차기
- 생존게임 : 처음엔 이름으로 시작하다가, 오디션 후에는 배역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과 워밍업, 신체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기초 트레이닝)

- 중립자세
- 호흡, 발성
- 몸 열기/닫기 → 사진 찍기
- 걷기, 뛰기, 등·퇴장
- '야 왜'
- '틱택톡'
- 거울 트레이닝
- A-B 상황극 → 목적 상황극

#### (아이스브레이킹)

- 곱 게임
- 마피아

오디션 전까지 올모스트 메인 대본 리딩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미리 읽고 연습하고 익숙해질수록 연습 중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다는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유의미했습니다.

## [오디션]

4월 22일 금요일에 진행했습니다. 금요일에는 1학년 교차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감안해서 각자가 편한 시간과 캠퍼스에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4시 반 이전은 명륜, 6시 이후는 울전에서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배역을 선보이고, 연출이 리딩을 요청한 배역 2-3개 또한 같이 진행합니다. 이때 기록을 위해 연출진 중 한 명이 오디션을 촬영해야 합니다. 향후 연출진이 배역 결정 회의를 할 때나 스태프가 캐스트들의 특징을 파악할 때 유

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 주말 내에 배역을 확정해서 그 다음 연습시간에 공지합니다.

[2주차]

[대본 분석]

캐스트 8명이 모두 모여 같이 대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극의 특성상 8명이 모두 모여도 각자 나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해지다보니 캐스트들의 집중력이 흐려지는 문제가 컸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대본 분석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덜했던 것은 대본 분석의 방향도 원인이었겠지만 그 시간 배분도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대본 분석 시간에는 ‘비트’를 나누고, 각 인물의 목적이나 목표를 잡는 것을 과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비트’는 인물의 전체 줄거리 내에서 큰 변화를 겪는 곳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를 대본 분석 시간에 잡고 가면 향후 장면연습에서 연습하기 더욱 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총 16시간을 한 주 동안 쓸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모두의 장면 분석을 끝낼 수는 없으니 각자 어느 정도 대본 분석은 집에서든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공지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분석을 연습시간에 연출이 같이 진행하더라도 그 이상의 분석을 각자 집에서 해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3-4주차]

[장면 연습]

런-쓰루 연습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장면 연습을 2주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3주차 연습까지만 대본을 보고, 4주차부터는 대본을 보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대본 숙지가 3주차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원래 장면 연습 때에도 캐스트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나, 옴니버스 극 특성상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캐스트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시간표를 써서 팀별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3-4주차 연습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8 일	9 월	10 화	11 수	12 목	13 금	
10:00-11:00					성록중후							성록중후	10:00-11:00
11:00-12:00					성록중후							성록중후	11:00-12:00
12:00-13:00													12:00-13:00
13:00-14:00													13:00-14:00
14:00-15:00			지민재홍					연희민우	강민추이				14:00-15:00
15:00-16:00			지민재홍					연희민우	강민추이				15:00-16:00
16:00-17:00					강민추이			지민재홍					16:00-17:00
17:00-18:00					강민추이			지민재홍					17:00-18:00
18:00-19:00	연희민우	워밍업			워밍업			스트레칭+워밍업					18:00-19:00
19:00-20:00	강민추이	강민추이		성록중후	강민추이			강민추이	지민재홍	성록중후			19:00-20:00
20:00-21:00	성록중후	지민재홍	PSY	연희민우	지민재홍			성록중후	강민추이	연희민우		축제	20:00-21:00
21:00-22:00	지민재홍	성록중후		연희민우	연희민우			지민재홍	성록중후	연희민우		철야↓	21:00-22:00

대본 리딩부터 시작해서, 장면 내 부분(비트)별로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4주차 후반에는 장면 전체를 한 번에 연습할 수 있을 만큼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3주차에 대본을 보면서 캐스트와 연출진이 생각하는 의도와 목적이 같은지 점검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논의 후 결정합니다. 이는 3주차 뿐만 아니라 4주차-5주차에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장면의 세부 구성이 늦게 완료될수록 캐스트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시연회 겸 철야]

4월 13일 자정부터 4월 14일 새벽 6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철야 연습동안 캐스트들이 장면 연습에서 구성해온 것을 점검하고 보여주는 동시에 스탭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큐를 맞춰봅니다. 공연 1주일 전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5주차 무대 리허설 시기에 서로 맞지 않거나 서로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캐스트들의 집중력이 제일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인들의 장면을 1시간 동안만 맞춰보면 됐던 장면 연습과 달리 시간도 길고 사람도 많아서 자칫하면 철야 연습시간의 효과나 순기능을 모두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출은 캐스트들의 연습 시간을 최대한 세세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구성해 6시간 동안 연습을 마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철야 시간에 선배님들께서 구경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캐스트는 물론 연출진도 긴장할 수 있으나, 개의치 않고 연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스탭이 철야 때 올 이유는 없지만, 최소 1명 이상의 팀원이 각 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철야 연습이 끝나면 바로 공연 직전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큐시트나 의상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출도 오는 스탭 인력을 고려해서 시간이 비는 캐스트들을 의소분 스탭에게 보내는 등 스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 [5주차]

##### [대도구 연습]

대사를 올바르게 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대도구 이동입니다. 암전 때 캐스트들이 어떤 동선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대도구를 옮길 수 있는지, 소품을 가지고 갈 여력이 되는지, 당시 백스테이지에는 누가 있는지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 대도구 런-쓰루를 두 차례 진행했었으나 무대 리허설 당일 부족한 점이 발견돼 대도구 이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사 실수는 캐스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대도구가 엉킬 경우 상황 몰입을 깨는 악순환이 발생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 3. 공연

공연 당일 아침 9시로 모두의 콜타임을 정해 공연 직전 까지 대도구 이동, 조명 에어리어 등을 점검했습니다. 연출은 캐스트들의 에너지가 죽지 않도록 북돋고, 1회차 공연이 끝나면 2회차 공연 전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사항이 뭔지 공지합니다.

1회차 공연이 끝나고 캐스트들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몇 시까지 쉬며 몇 시 몇 분에 다시 본다는 등 확실하게 공지해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 4. 마치며

5주를 나름 잘 쓴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더 신경 쓸 일도 많았고 더 잘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둔 것이 정답은 아니기에 다른 선배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많을 필요는 없으니, 더욱 더 꼼꼼히, 더욱 더 정성을 쏟을수록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연출을 가르쳐주시고 보듬어주신 선배님들, 그래도 항상 믿고 따라줬던 이번 공연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